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신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빛에 의한 인위적인 공간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박 슬 기

빛에 의한 인위적인 공간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신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 슬 기

인 준 서

박슬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9년 ‘스치는 낮과 밤’이라는 석사 학위 청구전시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성질을 통해 일상 풍경에서 나타나는 인위적인 공간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현대 사회의 풍경 속에서 반복적인 형태나 익숙해진 공간은 관심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을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낯설게 느끼게 되어, 이에 따라 빛의 성질과 범위에 달라지는 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착, 연구하게 되었다.

빛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연적인 빛과 인위적인 빛으로 시간의 순환에 따라 낮과 밤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나타난다. 자연적인 빛은 모든 공간을 비추게 되면서 개인이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넓은 범위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인위적인 빛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위치하여 선택적인 범위의 공간을 비추게 된다. 빛을 통해 비친 공간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형태가 공존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인위적인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본인은 선택된 시야 안에서 관찰하게 된 인위적 공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과 빛에 따른 형태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작업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빛에 따라 비친 공간 안에서 인물들을 통해 이야기를 형성하고 화면을 재구성하게 되었고, 빛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대비되는 효과를 작품에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작품을 통해서 설명해 보았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빛의 성질에 따른 형태	3
2. 인위적인 공간 표현	9
3. 작품 설명	15
I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스치는 낮, 72.7×60.6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6
【작품 2】 스치는 밤, 72.7×60.6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6
【작품 3】 비추는 나무 67.5×44.5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9	10
【작품 4】 비치는 형태 32×32cm*4 장지에 혼합재료 2019	13
【작품 5】 비친 형상 109×78.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17
【작품 6】 비친 형상 109×78.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18
【작품 7】 가려진 밤 172×97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19
【작품 8】 가려진 빛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20
【작품 9】 가려진 빛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20
【작품 10】 비추는 나무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21
【작품 11】 비친 나무 116.5×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22
【작품 12】 가려진 낮 66×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23
【작품 13】 낮의 길이 39×5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24
【작품 14】 낮의 길이 39×5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24
【작품 15】 버티는 기둥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26

도 판 목 차

- 【도판 1】 루앙 성당(강한 햇빛, 파란색 금색 조화) 캔버스에 유채 1893 5
【도판 2】 루앙 성당(아침 햇살, 파랑조화) 캔버스에 유채 1893 5

I. 서 론

일상의 흐름 안에서 보이는 풍경들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여유 있게 주변 환경을 감상하기 어렵고 특히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태나 공간에 있어서 익숙해진 풍경들은 관심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본인은 스쳐 지나가듯이 나타나는 풍경 속에서 낯설게 다가오는 공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개체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관찰하게 되었다. 그 형태는 인위적인 힘으로 심어진 나무라는 자연물을 지지하기 위한 인공물의 형태로 그것의 존재 의미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낮과 밤의 빛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시의 제목으로 ‘스치는 낮과 밤’의 의미는 작품의 주제를 뜻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스치는’의 ‘스치다’는 의미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거쳐 가다를 뜻한다.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간성과 시간성에서의 장면을 포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낮과 밤은 시간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빛은 성질이 다르게 나뉘게 된다. 낮은 자연적인 빛으로 일상의 단면을 비추게 되고 밤이 되면 인공의 빛, 즉 조명으로 비치게 된다. 대비되는 두 빛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공간에서 자연과 인공의 개념과 연결해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 시간의 순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빛의 성질과 그에 따른 형태에 대해 설명하며, 빛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작품을 예로 들어 본인의 작품에서 빛의 표현을 비교하고자 한다. 빛에 따른 변화의 표현의 계기에 대해서 2017년 작업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인위적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공간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시각과 인물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회화적 표현 방식과 재료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화면에서의 구성에 대해 나오게 된 배경과 본인만의 조형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으로는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며, 본 연구를 토대로 얻게 된 변화와 느낀 점을 언급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태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빛의 성질에 따른 형태

우리의 일상적 공간에 대한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가지의 경계가 생겨난다. 그 경계는 빛에 의해서 낮과 밤으로 구분 지어진다. 빛이 시간의 순환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됨으로써 어둠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낮의 공간은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시야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태와 사물에 대한 개념을 지각하고 익숙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적인 빛은 모든 공간을 비추게 되면서 개인이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넓은 범위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¹⁾에 따르면, 그는 낮의 세계에서 밤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투명하고 확실했던 사물의 세계가 제거되면, 그 세계에서 차단된 지각하는 우리의 자아는 사물이 없는 공간성을 그려낸다.”²⁾ 밤의 공간은 빛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모든 형태들이 어둠 안에서 형상을 잃게 된다. 하지만 현대의 밤 공간 안에서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인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안전이나 미관 등 인간의 필요에 의해 주변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하게 된다. 일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인위적인 빛, 즉 조명들은 부분적인 범위로 좁게 비친다. 선택적으로 보이는 형태들을 마주하게 되고 빛의 색감에 따라 형태에 스며들어 본연의 색을 잃게 된다.

1) 메를로 폰티 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현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현상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각의 현상학]의 저자이다.

2) 오토 프리드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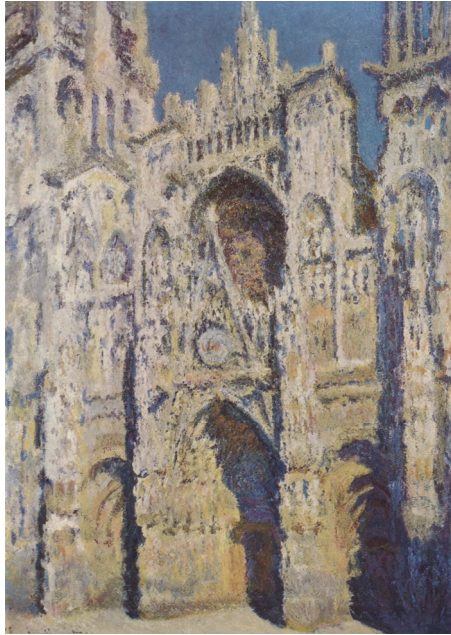
대비되는 성질의 빛은 방향성과 그림자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빛의 방향에 따라 생기는 명암은 공간감의 깊이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적인 빛은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그림자는 빛을 받지 않는 면에 생겨나면서 거리감을 보여준다. 인위적인 빛은 일괄적이지 않고 조명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명의 방향 중에서 아래쪽에서 오는 빛은 그림자가 물체보다 크게 생겨 비현실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위에서 오는 빛은 음영이 생겨 덩어리가 강조되어 보이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공간이 드러나게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 반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빛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입장에서 사물을 지각하고 감성적인 행위를 자극하여 인간의 상상력을 이끌어준다.³⁾ 빛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개인의 사고와 감성에 반응하여 인지하게 되고 표현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빛은 보이는 것에 대해 느낀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술적 표현 대상인 것이다.

빛의 변화를 포착하여 표현을 했던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⁴⁾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이다. 모네의 작품 중 연작시리즈는 같은 풍경이 빛과 날씨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 [루앙 성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각 다른 시간과 기후 조건에 따른 대기의 변화, 빛의 굴절의 차이를 포착하여 20여 개가 넘는 작품을 남겼다. 그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야 한다는 절대 원칙을 고수했다. 각각의 연작을 작업하는 동안 모네는 수시로 변하는 빛을 관찰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이 연작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제한적인 구성에 대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연작을 위한 소재의

3) 신봉현, 「공간의 의미와 효과 표현을 위한 조명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p.12

4)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1840~1926) 인상주의의 대표적 지도자로 1874년 [인상-일출]을 선보인 후 인상파라는 이름이 모네를 중심으로 한 화가집단에 붙여졌다.



【도판1】 루앙 성당(강한 햇빛, 파란 색 금색 조화) 캔버스에 유채 1893 【도판2】 루앙 성당(아침 햇살, 파랑 색 금색 조화) 캔버스에 유채 1893

연구는 이를 좀 더 근대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 그림 속 고딕 성당은 아름다운 건축물로서가 아닌, 회화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일반적인 사물의 고유의 색이 빛의 강도에 따라 다른 색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대상을 보는 바로 그 순간 빠르게 표현을 진행하게 되어 붓의 터치가 거칠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성당의 벽돌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을 묘사하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어내었다.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대상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 위에 비치는 빛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모네의 이전 연작과는 다른 종류의 모티브는 다른 아닌 대성당을 구성하는 벽돌이다. 계절에 따른 색의 변화를 구분할 수 없는 이 모티브는 그에게 같은 조건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빛과 대기의 표현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⁵⁾ 본인은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의 표현

5) 네이버 지식백과(미술백과,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



【작품 1】 스치는 낮 72.7×60.6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2】 스치는 밤 72.7×60.6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빛에 의해 드러난 공간에서 포착하게 된 자연물과 인공물의 형태는 이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자리 잡고 있었다. 낮과 밤의 빛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었던 연작작업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작품 1]과 [작품 2]는 시각의 변화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이전 작업에서는 인공물에 대한 관심으로 개체를 한정적으로 찾으려고 하였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였다. 본인의 시선의 범위가 확장되어 주관적으로 마주하는 풍경 안에서 인위적인 공간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날 버스를 타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고가 도로 옆 나무와 가로등이 낮설게 보이게 되었다. 대비되는 성질을 가진 요소들이 한 장면에 나란히 공존하며 늘 그렇듯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강렬하고 맑은 햇빛에 비치게 되어 색감과 형태마저 이질적이게 느껴졌다. 이러한 장면을 포착하고 감정이 극대화되었던 기억이 있다. 공허하고 허무한 감정의 자극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나 빛이 사라진 후에 같은 장면을 찾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인위적인 빛이 등장하여 부분적으로 밝혀지면서 형태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게 되었고 달라지는 분위기에 압도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질이 다른 빛에 의해 나타난 장면을 재구성하여 표현한다.

작품의 표현방식에 대해 설명하자면 [작품 1]에서는 낮 풍경으로 자연적인 빛에 비친 공간을 표현한다. 인공물과 자연물을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는 배경에 스며들어 하늘과 연결되게 나타내었고 색감을 해가 지기 직전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인다. 현실의 풍경이지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싶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인공물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시선의 방향이 모여지게 되면서 형태를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작품 2]는 근경의 형태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시간이 흐른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둠이 찾아오자 인위적인 빛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나무의 양감이 드러나면서 돋보이게 되고 인

물은 선의 형태와 그림자만 남게 된다. 빛의 효과에 대한 이질감과 나타나는 형상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연작을 통해서 같은 장면 안에서 빛의 성질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의 모습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빛에 반사되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대상은 같은 형태일지라도 비치는 범위와 성질을 통해 다른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빛의 변화에 따라서 색과 형태가 변질되게 되고 또한 그림자의 명암대비 효과로 공간감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낮과 밤의 대비되는 두 빛으로 다르게 드러나는 공간을 본인의 시각에서 포착하여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 연구한다.

2. 인위적인 공간 표현

미술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눈은 아주 기본적인이다.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시각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의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감상하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도시화로 인해 건물들이 생기고 산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적인 형태들이 소멸되어 나타나는 풍경이 다르게 변화하였다.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바뀌어 가는 도시 풍경 안에서 조경⁶⁾의 효과를 위해 놓여 있는 자연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필요나 목적에 의해 자연 속 공간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무는 항상 존재한다. 나무 형태들은 인위적인 힘으로 열을 세워 줄지어 위치하게 되고 특히 어린 나무를 심어 공간을 나누거나 넓은 범위의 공원을 조성하기도 한다. 땅에서 자연적인 힘으로 오롯이 버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물의 지지대의 형태로 나무를 받쳐주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접근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의 형태는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하지만 당연한 것들을 다른 방식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술 평론가인 존 버거(John Berger, 1926~2017)⁷⁾는 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만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종의 선택 행위다. 선택의 결과,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시야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인다.”⁸⁾라고 말한다. 본인은 선택된 시각으로 성질이 대비되는 형태가 공존하는 공간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일상적 공간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 공간

6) 조경 : 식물재료, 토목재료 등 조형물을 이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기술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7) 존버거 John Berger (1926~2017) 영국의 비평가, 소설가이자 화가이다. 미술평론으로 시작해 점차 관심과 활동 영역을 넓혀 예술과 인문, 사회전반에 걸쳐 깊고 명쾌한 관점을 제시해 왔다.

8) 존 버거, 최민 옮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2, p.11

은 인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인 형태, 즉 인공물이라는 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연물과 공존하는 인공물의 형태는 플라스틱으로 가공된 나무 형상을 띄는 기둥이나 다듬어진 각목, 또는 쇠로 만든 기둥 등의 형태로 자연물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빛에서는 조명을 의미하며 가로등 같은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물과 함께 놓이게 되고 그것을 비추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인위적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작품 3】 비추는 나무 67.5×44.5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9

대비되는 요소, 자연물과 인공물의 공존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어 빛에 의해 본인의 시각에 비친 공간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 빛의 성질에 따라 표현한 [작품 3]은 인위적인 공간에 대한 표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밤 익숙한 공간을 지나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빛의 느낌이 시선을 따라가게 하였다. 그 빛이 향하는 방향은 나무를 초점으로 비추고 있었는데 나무의 본연의 색은 옅고 조명의 색에 따라 색이 변질되어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빛 깔로 색이 스며들어 하나의 색으로 통일감 있게 뭉쳐서 보이게 되었고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대비되는 형태들의 장면은 이미지화되어 시각적으로 와닿았다. 빛이 나무를 비추는지, 나무가 빛을 비추는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연물인 나무가 주변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연물인 나무는 인공의 빛을 흡수하여 나타나는 색이 바뀌는 반면, 인공물의 지지대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색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인공물이 자연물을 지배하듯 스며들고 인공물 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 서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공 빛의 선택적인 범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형태는 자연물이고 그 자연물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 위치하며 인공물로 버티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감정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빛의 방향성 또한 어떠한 의도로 비추게 되는 것인지 목적을 알 수 없어 공간의 존재가 더 공허하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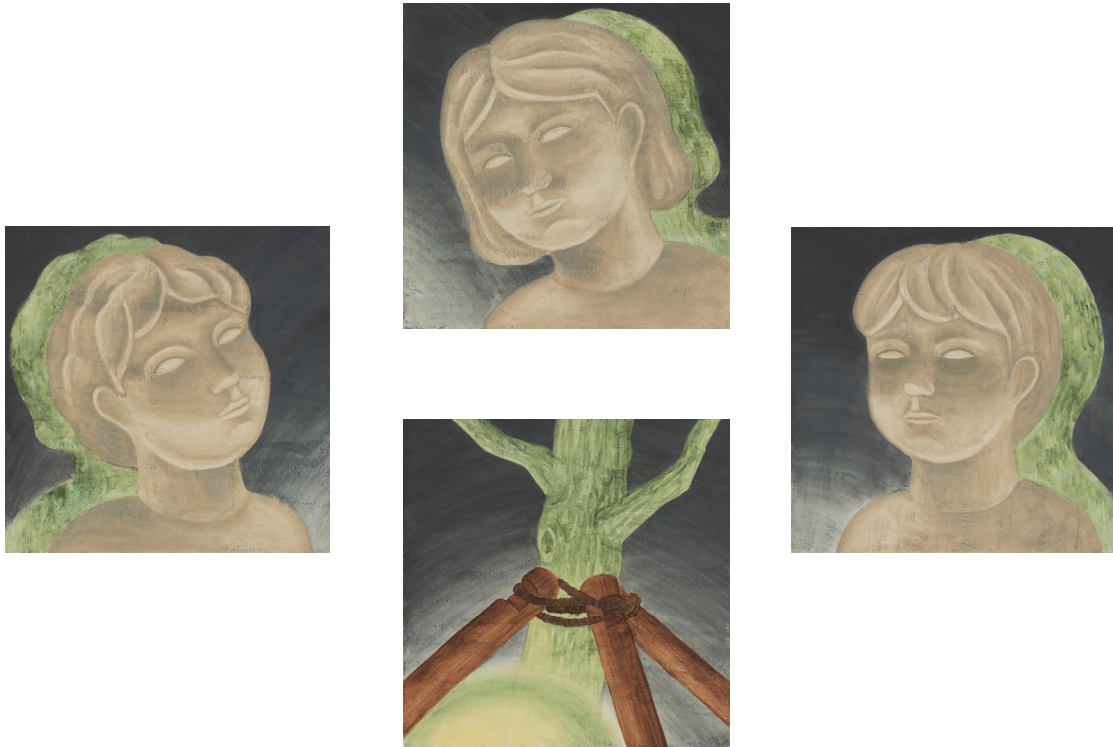
인위적인 빛으로 비추어진 공간에서 나타나는 효과 중 밝고 어두운 명암대비로 드러나는 형태와 그림자의 공간감을 통해 현실 공간이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본인의 시각으로 와닿은 공간을 포착하여 그 공간 안에서 느끼게 된 비현실성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화면에 구성요소를 넣어 표현하게 되었다.

예술가가 공간을 포착하는 방식은 과학자의 실증과 다르며 철학자의 사변과도 다르다. 화가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공간이다. 기하학적 공간이나 기하학의 공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추론이나 논증이 필요하지도 않다. 화가의 공간은 예술가의 직관과 깨달음에서 온다.⁹⁾ 화면 안에 구성되는 공간은 본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공간을 편집하고 재구성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본 공간을 사진으로 남겨서 포착하게 된 장면을 수집하고, 공간 안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역할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면, 본인이 바라보는 공간은 항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과 느끼는 감정은 각자 다를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장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익숙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감성을 일깨워주고 자극되는 경험을 하기 쉽지 않다. 본인의 시각에서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면서 공간에 대한 재인식과 감정의 환기를 일으킬 수 있으면 했다.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형성하고 이를 관람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인물의 구성은 본인이 포착하게 된 공간의 범위에서 당시의 분위기와 감정을 연결해 화면 안에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위치하게 되는데 풍경과 인물의 대비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싶었다. 공간에서 공간 자체로 압도되어 와닿게 되거나, 감정이 극대화되어 공간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 크기에 비례해서 크고 작은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물이나 공간에 집중되어 보이는 형상에 따라 개별적인 방식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된다.

9) 가오싱 쟈, 박주은 역,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p.221



【작품 4】 비치는 형태 32×32cm*4 장지에 혼합재료 2019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의 특징은 무표정이고 눈동자가 소실되어 시점을 알 수 없다. 시선이 한곳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방향을 알 수 없게 모호한 시선처리를 표현한다. 시선을 통해 인지와 지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눈동자를 생략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이를 통해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을 나타내고 보는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간 안에서의 인물은 빛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빛으로 인해 명암이 생겨 양감이 나타나 형태가 드러나고 빛을 차단하듯이 손으로 가려 그림자를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된다.

[작품 4]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 특징을 알 수 있다. 분할되어 나누어진 화면에서 빛에 의해 비친 형태와 각각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빛과 어두운 배경의 대비로 빛의 형태는 인위적인 빛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인위적인 빛으로 흡수된 나무 형태는 덩어리감이 없어 매우 가벼운 존재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와 반면에 인공물의 형태는 빛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반사되어 드러난다. 이러한 형태 주위로 비친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빛의 방향으로 인해 얼굴의 양감으로 그림자가 생겨 인물의 분위기가 형성되게 된다. 인물 뒤의 그림자로 인해서 빛의 형태와 같은 가벼운 그림자가 생기면서 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치고 있는 형태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선의 초점이 생략되어 더 공허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3. 작품 설명

빛에 의해 드러난 공간에서의 형태는 본인의 시각 범위로 들어오게 된다. 그 범위 안에서 빛을 통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사실적으로 재현되기보다 단면적으로 인식되고, 그것을 단순화된 형태로 형상화한다. 성질이 대비되는 형태로 구성된 인위적인 공간은 현실감이 배제되고 빛을 통해 형태의 본질이 생략되어 단순하게 보이게 되었다.

단순화는 어떤 현상이 관찰자와의 경험에서 빚어내는 긴장감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작가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재해석하여 그 형체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시키는데서 나온다. 따라서 형의 단순화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다른 조형적 요소를 현상적으로 상징화함으로써 본래의 내용보다 시각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¹⁰⁾ 이렇듯 본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위적인 공간에 대해 간결하게 나타나지만 상징적으로 강조되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단순화의 과정은 형태의 본질과 구조를 관찰하여 본인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형상으로 변형한다. 인위적인 공간에서 빛에 반사되는 형태들은 각각의 개체로 다가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느껴졌고 존재 의미에 대한 공허한 감정이 형태의 변형을 일으키게 되었다.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인물 또한 사실적인 묘사를 생략하여 시선과 행동이 집중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표현하게 되었다. 어떤 태도로 공간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단순화된 형태로 화면에 구성되는 공간과 인물을 통해 본인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인 요소들은 공간 안에서 이질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 자연물은

10) 정혜진, 「자연의 단순화와 반복성을 통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14

땅에 붙어서 존재하지만 인공물은 땅에 떨어져 묶여 있는 형태로 함께 그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 인위적인 힘으로 심어진 나무는 스스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인공적인 각목이나 기둥의 형태에 의존하여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 형태는 공중에 떠있는 듯이 부유하는 형태처럼 착각하게 되고 말라버린 질감으로 나타나 생동감이 없는 물체처럼 보이게 한다. 인위적인 조명의 빛이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여 형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작품에 표현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동양 재료인 장지와 서양 재료인 와트만지 종이를 이용하여 화면 위에 물감을 쌓아 표현을 한다. 두 종류의 종이는 표면의 마찰이 다르지만 그대로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디엄 젤을 바르는 과정을 통해 물감이 스며드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표면이 매트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크릴 과슈를 사용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물감 자국들이 형태를 나타내지만 화면위에 떠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로 인해 보이는 공간 속에 자연물과 인공물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화면에 부유하는 존재들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빛에 의해 나타나는 색감으로써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였는데 인물은 채도가 낮은 색으로 주로 나타나며 공간에서의 이질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빛과 그림자의 표현에서 밝고 어둠의 대비로 생기게 되는 공간감을 강조하였고, 빛의 투영과 반사에 따른 색의 영향으로 화면에서의 집중시킬 수 있는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작품 5】 비친 형상 109×78.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작품 5], [작품 6]은 같은 방향과 성질의 빛을 주제로 연구한 작품이다. 빛이 사라진 어두운 밤, 조성된 공원의 공간 안에서 빛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까이 다가가 관찰하니 바닥에 구멍을 내어 둥근 형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위를 향하여 밝히고 있었는데 흔히 보이는 가로등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빛이 아니었고 작은 형태이지만 주변을 충분히 환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하였다. 인위적인 빛이 밝히고 있는 방향 앞에는 자연물이 규칙적으로 놓여 존재하고 있었다. 바닥에 설치된 둥근 빛은 나무를 비추며 빛이 내는 색감에 따라 나무에 흡수되어 한 색으로 통일되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어느 형태가 빛이 나는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비추고 있었고, 이러한 시각적 체험을 통해 느끼게 된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 [작품 5]는 빛과 나무 기둥의 형태가 중심에 위치하고 그 공간 주변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밝혀진 영역 주위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인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물들은 빛의 영향을 받아 음영이 생기게 되어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 드러난 형태들은 빛 주변으로 모여 한곳을 응시하는 듯 보이지만 눈에 초점이 없어 시선이 모이는 지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다.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 빛과 나무를 향할 수도 있고, 정면에 위치하면 바라보는 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게 된다. 근경에 위치한 인물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관조적인 제3자의 시선과 태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화면 밖의 시각이 투영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양한 시점을 넣어 표현해보았다.



【작품 6】 비친 형상 109×78.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작품 6]은 자연물과 인공물이 놓여 있는 모습이 마치 패턴처럼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크게 확대시킨 공간에서의 나무는 규칙적으로 세워져 빛을 흡수하여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둥근 인위적인 빛은 바닥에 평면적으로 위치한다. 평면과 입체의 형태를 통해서 공간감을 표현하였고 빛과 어둠의 대비가 자연과 인공의 개념과 연결되어서 강조되게 나타내었다. 빛으로 인한 그림자를 생략함으로써 화면에서 공중에 떠있는 듯 표현하여 이질적인 현상을 극대화하였다.



【작품 7】가려진 밤 172×97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릴 때 눈이 부시게 자극되어 손을 올려 그림자를 만들어서 시야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에서 착안하여 [작품 7]을 구상하게 되었다. 자연적인 빛에서 나오는 동작으로 빛으로 흐릿해진 형태들을 손 그림자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여 잘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인물들은 인공의 빛 앞에 나타난다. 가로등과 함께 놓여있는 나무들은 빛에 영향을



【작품 8】 【작품 9】 가려진 빛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받으며 위치하고 있는데 형태가 빛에 흔들려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인물은 이러한 공간과 빛을 차단하고 인공물과 자연물의 공존을 가려진 시각으로 보려는 것처럼 구성하게 되었다. 인공의 빛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을 부정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졌다. 화면에서 인물과 공간의 크기 대비를 통해 인물을 강조해서 표현하였고 빛의 소실점으로 공간감을 나타내었다.

[작품 8], [작품 9]도 같은 주제로 한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인공의 빛 앞에 인물들이 나타난다. 빛이 직선과 사선으로 향했을 때 생겨나는 틀에 갇힌 듯이 선택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드러난다. 빛을 자의적과 타의적인 손으로 가려져 생긴 그림자를 통해서 시야가 어두워지고 흐릿해지게 되는데 공간에서의 빛을 차단하여 단면적인 현상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작품 10]는 새롭게 조성된 건물 앞에 심어진 나무로 크기가 작은 어린 나무였는데 그곳에서 눈을 자극하는 빛을 발견하였다. 인공의 빛이 나무를 비추게 되면서 형태 뒤로 그림자가 생겨났고, 그림자는 실제의 나무 크기보다 과장되어 확대되게 나타나서 비현실적인 공간이 연출되었다. 그 장면을 포착하여 화면에 구성해 보게 되었다. 가지가 크지 않은 나무의 형태는 그림자로 인해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게 되었고 공간을 둘러싸게 되었다. 조명의 색으로 흡수되어 나무는 빛의 출처를 알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빛나고 있고 인공물인 지지대의 형태는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자연물이 인공물에 의해 지배되는 듯이 압도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 10】 비추는 나무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작품 11】 비친 나무 116,5×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인공의 조명 빛은 인위적인 힘으로 설정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의도나 목적을 알 수 없는 채 빛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작품 11]도 앞서 설명한 작품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한 것이다. 빛으로 인해 선택적으로 드러난 부분 이외에는 어둠이 존재하게 된다. 조명의 형태에 따라 둥근 형태로 보이게 되는 공간 속에 나무가 인공물의 힘으로 버티고 있고 규칙적인 구조물로 인해 공간이 분리되어 보이게 된다. 빛이 투영된 나무의 형태 뒤로 그림자가 생기고 인공물은 빛을 반사시켜 튕겨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질이 다른 형태가 한 화면에 공존하는 것이 이질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 12】 가려진 낮 66×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자연적인 햇빛은 낮의 공간으로 빛에 의해 전체의 형태와 사물이 드러나게 된다. 가려지는 형태 없이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품 12]는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에서 현수막과 선의 형태로 막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형태들의 목적은 뒤에 나타나고 있는 나무들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었다. 공유되는 공간에 제한을 주면서 시각적으로만 관찰하게 하는 것이다. 눈으로만 보게 되는 장면 속에서 자연물에 묶여 공간을 분리하는 현수막의 형태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다가왔고 뒤의 풍경과 다른 분위기로 느껴졌다. 빛을 받는 영향에 따라 색감의 대비로 인해 앞의 풍경은 생기 없고 딱딱한 구조물의 일부로 보이게 되고 뒤는 빛과 그림자의 형태로 공간감이 나타난다. 인물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떠있는 듯이 멀리서 빛을 차단하는 동작으로 시야를 확보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작품 13]과 [작품 14]도 낮 시간 빛에 의한 공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와 크기도 다르게 되는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표현하였다. 자연적인 빛은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비추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뒤의 방향과 사선의 방향에서의 나타나는 공간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13]은 뒤에서 앞의 방향으로 빛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나무 그림자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쏟아지듯이 생긴 그림자를 통해서 단조롭지 않은 공간이 연출되게 된다. 인공물의 그림자는 생략되고 공간에서 인물은 관조적인 태도로 빛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빛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흐름을 시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작품 13】 낮의 길이 39×5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작품 14】 낮의 길이 39×5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작품 14]는 사선의 방향으로 생긴 그림자의 길이로 낮의 시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공물의 그림자는 사라져 자연적인 형태에 더 집중시켜 볼 수 있게 된다. 그림자의 형태 위로 나타난 인물은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빛의 방향을 즐기는 듯이 자연적인 경계를 넘지 않고 지키고 싶은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 15]는 빛의 경계에서 비추어진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자연적인 빛과 인위적인 빛 사이에서 느껴진 색감을 나타내고 화면을 통일시키는 시도를 해 보았다.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공간의 색감을 통일시키면서 부각되는 형태들은 명암으로 강조되게 된다. 한 색감 속에서 인공물의 형태가 두드러져 보이고 자연물인 나무의 형태만 투명하게 비치듯이 보인다. 비침 뒤로 인물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시선의 방향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시선의 방향 속에서 초점은 알 수 없어 무엇을 바라보는지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경계의 빛을 통해 나타나는 공허한 공간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작품 15】 버티는 기둥 77.5×5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Ⅲ. 결 론

본 논문은 빛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인위적인 공간을 본인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재구성하여 표현한 작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인은 빛에 의해 변화하는 공간의 모습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빛에 반사되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대상은 같은 형태일지라도 빛의 범위와 성질을 통해 다른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본인이 마주하는 경험적 공간 안에서 대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과 인공물이 공존하는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되었고 시각과 태도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보는 방식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다른 성질의 빛에 의해 나타나는 공간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었다. 시선의 반복 속에서 자연물과 인공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고 자연적인 빛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빛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빛의 방향성은 자연물을 향해 연출된 것처럼 나타난다. 이 요소들을 통해 인위적 공간이 구성되게 되고 빛을 통해 보이는 형태들의 관계와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통해 화면의 공간감을 구성하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을 인물의 등장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밝고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집중시키는 조형요소를 나타내려고 시도하였고, 인물의 시선처리와 행동을 통해서 공간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상적 공간에서의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여 익숙한 환경에 대한 감정의 환기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느낀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한 감정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었다. 빛으로 나타나는 공간에서의 관계에 대한 감정으로 시작

되어 표현하였고 이러한 감정에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대비되는 공간의 범위를 넓혀서 본인의 시각으로부터 나아가 타인에게 공유되는 지점의 공간에 대한 고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앞으로의 본인만의 회화적인 조형표현을 구체화하고 확장시켜서 새로운 작업의 방향성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가오싱 쟈, 박주은 역,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 메를로 폰티, 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1989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 존 버거, 최민 옮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2

논문

- 김현주, 「인공적으로 제조된 풍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백지혜, 「빛을 통한 일상의 공간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신봉현, 「공간의 의미와 효과 표현을 위한 조명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정혜진, 「자연의 단순화와 반복성을 통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rtificial Space by Light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Park, seul g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the master's degree requirement exhibition 'Crossing Day and Night' in 2019, accompanied by observation and study of everyday scenes of artificial spaces that change with the change in light due to the flux of time.

The monotonous modern society leaves no room for an individual to pay attention to repetitive patterns and familiar spaces. However, the truth is that once one stops to carefully observe the surrounding objects and spaces, it easily become clear that the world is actually ever-changing. I have found the change in light particularly interesting, for what seemed at once to be so ordinary can suddenly become surprisingly obscure and different, even by the slightest change in the source of light and the boundary it sets.

In our everyday life, we come across two distinct types of light that differ in their origin. One is light from a natural source, namely the sun, and the other is light from an artificial source. Usually, natural light dominates the

day, while artificial lights replace its absence at night.

A major contrasting characteristic between the two is that natural light shines upon space without limit, while artificial light selectively illuminates a limited space with a purpose that corresponds to man's needs.

In consequence, in the presence of natural light, the perception of space is only limited by one's viewpoint and thus enables observation at a wide scale. Without it on the other hand, we are left only with artificial light, and therefore are restricted by the boundaries it sets. Within these boundaries, objects both natural and artificial coexist, appearing one after the other, thereby forming a space both artificial and natural.

Through my work, I have sought to capture such interesting conditions and convey the personal emotions and sensations that arose as I observed them. By the beams of light, the people in the painting become characters of an enigmatic story, while the surrounding space becomes the stage providing contrasting illumination as if by a spotlight.